

농어촌 여성 “아이고 허리야~”

농어촌여성의 ‘이중고’가 심각하다. 농사와 어업, 축산 등 생계를 위한 노동과, 가사일까지 함께 해야하는 농어촌여성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남도 농어촌지역은 ‘여초(女超)현상’이 심화되며 여성들이 산업활동과 가사노동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전남도에 따르면 2014년 전남의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율은 18.7%이며, 전체 농가인구 중 53.2%가 여성이다. 지난 2013년 여성 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여성 농업인이 농사일의 50% 이상 담당하는 비중이 66.2%로 높은 수준인 반면 여성 농업인이 가사노동을 75%

전남 ‘여초’ 심화 속 생산활동·가사노동 ‘이중고’ 남성보다 일 많지만 의사결정 소외... 대책 마련 시급

이상 담당하는 경우가 82.8%를 차지했다. 생산 활동과 가사 노동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 의사결정 등에서는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여성플러자가 최근 ‘농촌마을 공동체, 그리고 여성’을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집중토론됐다.

여성농어업인들은 생산활동에서는 부담이 많지만 정작 마을사업이나 기반 시설 설치 결정 과정 등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미나에서는 여성 농업인, 현장 전문가, 연구자 등과 함께 농업을 매개로 마을의 다양한 문제해결 주제인 농촌여성의 역할을 조명하고 그들의 활동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주제 발표에 나선 순천대학교 교수는 “마을공동체 운동에 있어서 앞으로는 남성 중심의 리더십에 대해 거부하고 여성 참여를 정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마을사업 내용을 여성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성을 역할을 강

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서는 다각화되는 농촌 여성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마을의 여성 일자리, 돌봄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는 여성활동 사례들도 거론됐다.

이 밖에도 흥경희 언니네 텃밭 전남단장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여성 농민공동체’, 김인선 (사)농촌이민여성센터 이사가 ‘농촌이민여성고 원주민의 상상’, 김정희 가배을 대표는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도·농교류’, 김승애 일년내내 돌래산타 공동대표가 ‘여성에 의한 마음돌봄실현’ 사례를 각각 발표하며 농어촌 여성의 처우 개선에 관한 대안을 제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 경도에 복합리조트를”

여수·순천·광양상의, 청와대·문광부에 청원서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지역상공인들이 중앙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민·관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3일 “여수·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여수경도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한 청원서를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신규 복합리조트 선정에 관한 콘셉트 제안요청 공모’에 여수경도 개발을 위한 3개 민간투자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경도 유치를 위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전남 동부권 상의는 “전국에 16개 외국인 카지노가 운영 중이지만 호남에만 유일하게 카지노가 없다”며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여수 경도를 이번 복합리조트 지역 선정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 경도는 현재 전남개발공사가 27층의 골프장과 100실의 콘도미니엄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부지 65만평 규모에 대해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또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이며 인근 크루즈 전용부두가 있어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편 문광부는 이달 말까지 복합리조트 제안서를 제출한 전국 9개 지역 34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대상지역을 선정할 뒤 12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순천 서동마을에 커피농장 내년 조성

광주 신흥동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행자부 ‘희망마을만들기’ 선정

순천 서동마을에 내년부터 커피 농장이 조성된다. 이곳에서 생산한 커피를 로스팅하는 ‘커피방앗간’이 함께 들어오고, 방문객이 이 마을에 머무르면서 커피 생산·가공·포장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커피호스텔’도 운영된다. 광주 신흥동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조성되며, 북카페를 비롯한 마을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각종 공유 등도 배치된다.

행자부지부는 3일 “올해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순천 서동마을의 ‘농부들의 커피방앗간’과 광주 광산구 신흥동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2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를 위해 행자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작업장·사업체를 꾸리는 ‘소득창출형’과 지역사회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생활지원형’으로 나뉜다. 올해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21개 지역에는 특별교부세 총 30억원과 지방비 총 30억원이 투입된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에 만들어진 희망마을은 99곳이다.

행자부가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99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일자리 400여 개가 생기고 방문객 25만 명이 다녀갔다. 행자부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소외된 마을이 사람이 찾아오는 마을로, 주민이 떠나는 마을이 되돌아오는 마을로 변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 산후조리 지원

복지부 사업 대상 확대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속해 있는 산모는 출산 후 정부로부터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8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가구에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작년까지 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였던 것에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복지부는 예산 확보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사업의 대상자가 되면 출산 후 2주 동안(단태아 기준)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는 산후체조와 영양관리를 시켜주고 신생아를 돌봐주거나 세탁이나 청소 등 가사 활동을 도와준다.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배우처를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결핵 판정을 받은 뒤 신생아실 영아 15명이 잠복결핵 감염자 판정을 받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연합뉴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번째 빛가람 입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3일 나주 빛가람 도시 신청사에서 입주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나주시대를 열었다. 강인규 나주시장 등은 이날 오전 신청사로 첫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장미꽃 한송이씩을 전하며 환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원장은 직원들과 함께 신청사 앞에서 연구원기를 게양한 뒤 회의실에서 첫 직원정례회를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연구원은 국가 주요 농업정책 수립에서부터 국제통상과 마을단위 농촌개발 분야까지 연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운영예산은 정부 출연금과 자체수입 등 연간 500억원 규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입주로 광주 전남혁신도시 이전기관 16곳 중 14곳이 입주를 마쳤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kwangju.co.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원장(사진왼쪽)이 3일 직원들과 함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신청사 앞에서 연구원기를 게양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이희호 여사 5~8일 방북

북측 초청장 발송... 정부 “메시지 없어”

북측이 3일 김대중평화센터 측으로 초청장을 발송함에 따라 이달 5~8일로 예정된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확정됐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이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3일 오후 이희호 이시강 방북 초청장을 보내왔다”며 “수행원은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을 포함해 18명”이라고 밝혔다.

북측이 발송한 초청장에는 이 여사를 포함한 방북단 19명을 초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단에는 수행단장인 김 전 장관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명예대표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장종식 단국대 이사장, 최용준 전재교육 회장을 비롯해 윤철구 사무총장, 최경환 공보실장, 박한수 기획실장 등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 7명이 포함됐다.

이 여사가 설립한 인도적 지원 단체인 ‘사랑의 친구들’ 소속으로는 윤장순 초대 운영위원장, 장석일 성애의료원장(주치의), 이정원 사무총장 등 3명이 수행한다. 이 밖에 비서 2명, 경호원 4명, 전속 사진 및 동영상 기사 2명도 방북단에 포함됐다.

이 여사와 함께 방북할 것으로 예상됐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방북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취재진도 동행하지 않게 됐다.

이 여사는 방북 기간 평양산원, 애육원, 아동병원, 묘향산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숙소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11년 조문 방문시 사용한 백화원초대소와 묘향산호텔로 정해졌다. 이 여사가 평양 방문 때 전달할 선물은 이 여사가 직접 뜯 털복도리와 의료·의약품 등이다. 이 여사의 방북 기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대북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www.plubber.co.kr

세계가 인정한 육상트랙 플러버 롤시트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 육상트랙 시공

- 5년만의 남자 육상 100m 한국 신기록(10초 16)
- U대회 사상 최초 100m 남자육상 9초대 진입(9초 97)

국산 롤시트 최초 IAAF Class1 획득



광주 대성고교



남진 저지류 농구장



화성 행복공원 산책로



목포 석현별방공원

육상트랙 / 다목적구장 / 산책로 등

친환경 녹색기술기업
탄성 포장 전문기업

Plubber (주)플러버

본사 : 525-882 전남 함평군 월야면 백야길 88-70
Tel : 070-7769-8614 Fax : (061)323-5206